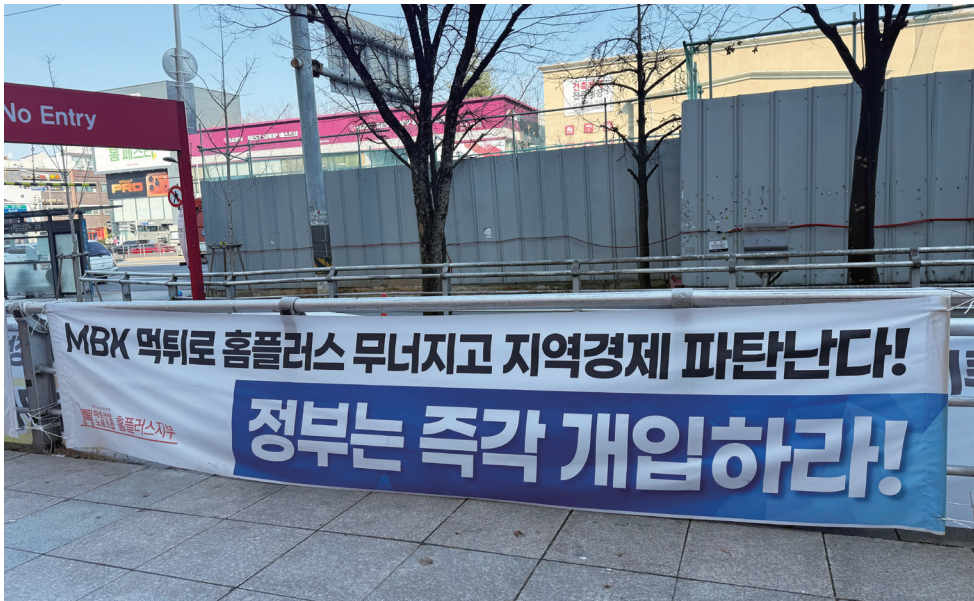


쓰지 못한 그 눈물



대한경제

문수아 기자



살면서 중년 남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2024년 여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진상 파악과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 자리. 의원실, 관계 부처,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가 차례로 발언했고 사이사이 피해 판매자들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한 40대 남성이 자기 차례에 마이크를 잡았다. 목 소리가 흔들렸다. 한참 말을 잊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마이크를 뚫고 나온 한숨 소리보다 땅바닥에 부딪히는 눈물방울이 투둑 투둑, 공간을 때리는 것 같았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노 끝에 흘린 눈물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받아 적었다.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나의 일. 이름, 미정산 금액, 발언 요지, 인상적인 멘트. 토론회가 끝나면 한 시간 안에 기사 한 꼭지를 송고해야 했다. 어떤 멘트를 따올지 머릿

속으로 이미 정해 두는 게 익숙한 일이었다. 송고를 마치고 노트북을 덮고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왜 울었는지 받아 적은 것 외에 무엇을 더 알고 있는가. 현장을 충실하게 전달한 그 기사 어디에도 눈물의 무게는 담기지 않았다.

경제신문에서 오랜 기간 취재기자로 일하면 세상을 숫자로 본다. 매출, 영업이익, 시장 점유율, 거래액, 인수합병, 분기 실적과 신사업 발표회, M&A(인수합병)와 컨퍼런스콜. 대중이 쫓는 가치를 반 박자 빨리 치고 나가는 쾌감도 있었다.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을 볼 때는 설레기도 했다. 신화로 떠받들리는 창업자, 한 시대를 끝낸 인수, 새로 등장한 채널, 무너진 강자가 비운 자리. 그 변곡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잡아 분석하는 일이 기자의 실력으로 통했다.

위기에 몰린 기업 기사를 쓸 때도 능숙했다. ‘경영진의 오판’, ‘의사결정 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이 서비스를 재개한다. 사태가 발생한 지 딱 1년 만이다. 오아시스 마켓에 인수된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인사말 어디에도 신뢰와 관계를 회복할 대상인 소비자, 판매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물론 티몬의 새 운영사가 지은 잘못은 아니다. 신뢰와 관계를 잃은 티몬을 인수해 이커머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과오가 따라붙는 위험성까지도 분명히 고려했을 것이다.

지난해 티몬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국회의원, 관계부처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여러 번 있었다. 제삼자로 사태를 보도하는 처지임을 잊지 않으려 했지만, 유독 쉽게 삼켜지지 않은 말이 있었다. "법이 그런 걸 어쩔 수 없다." 피해자 보상이 논의될 때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이었다. 얼핏 합리적이지만 깊은 모순이 숨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법이 정작 시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쉽게 법을 들먹인다. 책임은 피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제도로 정당화하는 '합법적 외면'일지 모른다.

기사에 담지 못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차장 칼럼에 쓰는 것으로 대신했다.

법이 그래서

언주로 칼럼

문수아 생활경제부 유통팀장



홈플러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홈플러스에 판매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에는 최대한 읍소하면서도 입점업체에는 무심하다. 임대 형태로 입점한 중소 점주들은 법에 따라 변제를 받더라도 뒷순위로 밀린다. 입점업체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영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 하고, 홈플러스 본사는 '법이 정한 순서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선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티몬 판매자,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는 세간의 비난이 가장 아프다고 했다. "그러게 잘 알아보고 창업했어야지" "티몬 요새 누가 쓴다고 거기서 판매를 해?" 같은 말은 안타까움을 가장한 언어폭력일 뿐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 수

사 중이다. 직접적인 의사결정 당사자들도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홈플러스 생태계의 가장 끝에 있는 입점업체 업주들이 미리 알 방법은 없다.

다시 1년 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떠올린다. 진상 파악과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 40대 남성이 눈물을 흘렸다. 종년 남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는 살면서 처음이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분노 끝에 흘린 눈물이었다. 이들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수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해 은행에서 전 재산 대출도 무리 없이 받을 만큼 건전한 사업자였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은 0.75%. 받지 못한 돈은 1000만 원인데, 받을 수 있는 돈은 7만 5000원이 전부다. 총 미정산 금액 1조 2789억 원은 피해자 50만 명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그 종년 남성의 눈물은 지금 그쳤을까. '신뢰와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여전히 없다. "법이 그래서"라는 말만 남았다.

moon@

패', '구조조정 지연', '리더십 부재', '시장 환경 변화 대응 미흡'. 어떤 사태가 터져도 꺼내 쓸 수 있는 진단 도구가 머릿속에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문제를 빠르게 짚고, 책임 소재를 정리하고, 시사점과 개선책을 박스 기사로 담는다. 익숙함과 능숙함이 정비례하며 시간이 흘렀다.

티몬 사태 분석 기사를 쓸 때도 그 도구함을 열었다. 큐텐 그룹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 자본잠식 상태의 플랫폼을 사들여 물류 자회사 상장만을 목표로 달린 무모함, 자기객관화의 부재, 과거 성공 방식에 갇혀 변화한 시장을 읽지 못한 점. 사람들을 다룰 때도 분석 도구는 유용하

게 느껴졌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율은 0.75퍼센트. 받지 못한 돈이 100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7만 5000원. 총 미정산 금액 1조 2789억 원은 피해자 50만 명에게 그대로 전가됐다. 숫자들을 기사에 넣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정보였다.

그러나 그 숫자가 한 사람의 수년이 쌓인 결과라는 사실,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도 무리 없이 받을 만큼 성실했던 한 자영업자의 시간이라는 사실은 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분석 뒤에 남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비레 그래프의 좌표축을 의심 없이 한 칸 우상향시켰을

2026 기자의 세상보기

대한경제

2024-08-02 (금) 017면

큐텐, 직구 판매자 대금 1000억 미정산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점입가경'

해외직구 플랫폼 '티몬월드' 판매자들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 이용 유도"

정부 '만기연장 대책'에도 불만 목소리
"대금도 못받은 상태에서 추가이자 낼 판"

아마존과 알리바바그룹처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사업모델을 구상했던 쿠팡이 정작 해외직구 판매자 대금을 대거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영배 쿠팡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정부위원회 헌안질에서 "한국으로 한정돼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해외로 나가기 불러(판매자)들도 잘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판매가 끝 후 한달도 정산되지 않아 판매자들은 수십억원대 빚을 떠안았다.

1월 '티몬월드 미정산대출 관련 디지털가전 및
해업제 한정장담회'에서는 티몬과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을 활용해 단기간 거래액은 커운 정량
증언이 나왔다. 티몬월드는 큐텐그룹 인프라를
활용해 운영한 해외직구 플랫폼으로 현재는 티몬
비즈마켓으로 이름을 바꿨다.

피해 판매자들은 티몬이 의도적으로 티몬월드에서 판매할 것을 유도하면서 SC제일은행의 선정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A판매자는 "과거에도 큐텐코리아측에서 티몬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큐텐으로 돌려줄 것을 부탁했고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구매후수증에 '먼세! 나와 판매자들이 판매를 중단했다'며 '작년 9월 티몬월드를 시범 운영한다면서 상

은행, 온라인마켓 선정상 대출 규정

※ 티몬빌드 본연직자 미정산비율도 100%의 경우 추산

상대(본연직자)

대출액 80%
티몬 빌드 (800만원)

한도지정
및
계좌입금
계좌

소세자

은행

원상상대
정산금 입금(상환)

한도지정
(충환도)

결제

온라인 마켓

TMON

플 판매 전환을 요구해 소규모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4월부터 SC제일은행이 선정산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주면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고 했다.

늘린 만큼 절반(30억원) 이상은 써줘야 기존 한도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행이 파악한 선정산대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자들은 5~7월 판매 대금을

피해자들은 티몬월드로 판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티몬과 SC제일은행이 향후 정산될 판매대금을 담보로 실행하는 선정산대출 규모를 3배 확대해주겠다고 영업한 대독을 의심했다. 선정산대출은 SC제일은행이 고객에게 상품권이나 상품권을 정산할 때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 잔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티몬과 티몬월드는 다 정산받지 못했는데 이 기간 티몬 MD들이 임의로 10% 이상 할인되는 쿠폰을 적용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 피해규모가 커졌다.”

늘린 만큼 절반(30억원) 이상은 써줘야 기존 한도도 유지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SC제일은랭이 파악한 선전산대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판매자들은 5~7월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는데 기간 티몬 MD들이 임의로 10% 이상 할인되는 쿠폰을 적용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 피해규모가 커졌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티몬과 티몬월드는 다

대한경제

티메프 쇼크·쿠팡 PB제재… 더 거세진 C커머스 공습

 흔돈에 빠진 이커머스업계

자본잠식상태서 출혈 경쟁 탈나
中 알라테무 공격행보 나설 듯

금융권 대책 마련 진화 나섰지만
부실 확산... '모럴해저드' 우려도

‘타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공정
래위원회(공정위) 루팡 제재까지 더
지면서 이커머스업계가 요동치고 있

요동치는 이커머스 업계

2024년 하반기 내내 티메프 사태 여진이 이어졌고 후속보도에 매달렸지만, '업계 순위 변동' 같은 경제지 산업부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특가 상품 수요가 여타로 이동하지
된다. 완전자본시장 상태였던 양사는
대출을 꾸준히 계속 유지하고자 초특
대에 집중했다. 매출이 감소하면 자산
부분인 정산금이 줄면서 자불해야
하는데도 보유한 금액이 적은 한대실
이 발생할 수 있다.

이커머스 업계가 지난해부터 일제
비용절감에 나섰다. 소비자 위축도
저 초특대 상품 위주로 판매가 이뤄
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티몬 정산 구조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settlement process for TMON. It shows a sequence of steps: 1. 결제 (Payment) from the User to the Merchant (소매자). 2. 대금 지급 (Settlement) from the Merchant to the Card Company (카드사). 3. 수수료계입 대금 지급 (Settlement of fee-included amount) from the Card Company to PG사 (PG Company). 4. 수수료 배분 (Fee Distribution) from PG사 to 티몬 (TMON). 5. 소액자 정보 전달 (Transfer of small merchant information) from 티몬 to the Merchant. 6. 내금 지급 (Settlement of amount due) from 티몬 to the Merchant. 7. 대금 지급 (Settlement of amount due) from 티몬 to the Merchant. 8. 상환 배분 (Repayment Distribution) from 티몬 to the Merchant. The flowchart also includes a feedback loop from the Merchant back to the Card Company.

```
graph LR; User[소매자] -- ① 결제 --> Merchant[소매자]; Merchant -- ② 대금 지급 --> Card[카드사]; Card -- ③ 수수료계입 대금 지급 --> PG[PG사]; PG -- ④ 수수료 배분 --> TMON[티몬]; TMON -- ⑤ 소액자 정보 전달 --> Merchant; TMON -- ⑥ 내금 지급 --> Merchant; TMON -- ⑦ 대금 지급 --> Merchant; TMON -- ⑧ 상환 배분 --> Merchant; Merchant -- ⑨ 수광구배 확정 --> Card;
```

마켓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미성산
태가 발생하면서 판매자들에게 다시
번 정산주기를 알리고 선결제에 나섰
다. 11번가는 최근 판매자들에게 "구매
정일 기준 2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
산한다"며 "빠른 배송을 진행하는 판매
에게는 발송 완료 1일 이내에 정산을
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마켓과
판매자들도 선 사후결제 등 금슬이

다. G마켓도 구매결정 후 다음날 정신
고 고객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도 배
원료 후 7일 이후 대금을 정산한다.
8월 중순으로 예고된 쿠팡의 PB 앞

도업계에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공정위 직매입 또는 PB 상품 위주로 검색 상영

노출하는 대신 눈치 거둬대 판매담당
 영업 요소를 중심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운영하려는 입장이다.

중국 이커머스 공세도 거세다. 알리
 스프레스(알리)는 국내 소비자들과
 통에 나서 서비스와 상품을 개선한 방
 이다. 이직 한국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
 을 밝히지 않은 테두가 법인 설치 등
 강행하다. 이미 국내 이커머스 특장점이

금융권 부실 해결 논란

사는 28일부터 티메프에서 절제한 금액의 결제 최소를 제기한다. 토스, 카카

티몬과 우메즈가 완전자본집시 상태에 빠진 지 오래였고, 지난 6월에서 이커머스 등의 거래대금과 선물충전금을 빌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될 정도로 이커머스의 대금 정산이 관행에 따라 이뤄지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익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부실을 정부가 해결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시장자본주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는 티몬, 위메프의 구매 고객에게
계급별 차이를 없애면 데이터를 지원했다. PG
사들한테서도 구매 인증을 하도록 했다. 티
몬과 위메프는 물론이거니와 그밖의 PG사
들이 많기는 않겠지만, 과연 이들은 PG사가
이제까지는 몰랐던 것에 대해 정확한 판
단과 평가기준이 없는 점에 위임하고
여기에 정부도 조사생각기때부터 중
심으로 했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공익적인 건과 경영전략적 가치 지양만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각각-각각' 실패
를 자초한 금융당국과 정부가 먼저 회사
부실인 현실을 무인한단 지적을 할 수
없는 건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에 이어 29일 대대
회의를 열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이재근·이영호 2인1조 2인1조 2인1조

문순아·이종무 기자 moon@

것이다. 토론회에서 그의 눈물을 마주한 며칠간 부끄러웠다. 그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단어들이 사실은 산업 안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는 데 더 자주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화려한 변곡점을 따라가는 동안, 변곡점이 끝낸 누군가의 일상은 한 줄로도 적히

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러게 잘 알아보고 창업했어야지.”

머뭇거림은 잠시였고 뉴스는 매일 터졌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025년, 이번에

는 홈플러스. 단기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정상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 납품 협력사에는 회사가 최대한 읍소했지만, 임대 형태로 입점한 중소 점주들은 법에 따라 변제를 받더라도 뒷순위로 밀렸다. 입점업체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영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했고, 홈플러스 본사는 ‘법에 정한 순서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또 도구함을 열었다. 부끄럽게도, 익숙함이 편했다. MBK 파트너스가 인수 후 매각한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 규모, 그 동안의 경영실적, 폐점 점포와 그에 따라 수혜를 볼 경쟁사 점포의 영업권역 거리 같은 것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는 역시 그만한 도구가 없었다. 그러다 한 홈플러스 입점업체 점주를 인터뷰하던 날, 그는 세간의 비난이 가장 아프다며 울었다. “그러게 잘 알아보고 창업했어야지.” “홈플러스 거기서 누가 장사한다고.” 안타까움을 가장한 한 마디들이 칼처럼 날아와 박힌다고 했다. 직접적인 의사결정 당사자들도 “몰랐다.”고 하는데, 홈플러스 생태계의 가장 끝단에 있는 입점업체 업주들이 미리 알 방법이 무엇이었던가.

이번에는 박스 기사에 답해보자고 기자입력기의 ‘새기사’를 눌렀다. 변제 순위, 임대 계약 조건, 책임 조항을 정리한 익숙한 박스 기사. 그 형식 안에 점주의

시간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뉴스의 소비기한이 지나버렸다. 기사는 끝내 게재되지 못했다.

티메프에서 홈플러스로 대상은 바뀌었지만, 풍경은 여전하다. 책임은 없는데 피해만 남은 풍경.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치는 풍경. 그리고 그 풍경 앞에서 경제신문 기자가 습관처럼 늘어놓는 현란한 숫자들이 과연 얼마나 쓸모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산업 분석은 누가 결정을 잘못했는지 짚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이 끝낸 한 사람의 시간은 짚지 못한다. 시장 환경 변화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변화의 가장 끝단에서 부서진 일상은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도 우리 운명을 안다”

티몬 사태 토론회 막바지였다. 한 피해 판매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도 우리 운명을 안다.” 그 한 마디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가 숨죽여 흐느꼈다. 빗잔치로 끝나더라도 생계는 이어 갈 수 있게 도와 달라던 절규였다. 그때는 그 말이 어디까지 가닿아야 하는 말인지 가늠하지 못했다. ‘당연히 망하겠지.’ 정도로 납작하게 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요즘 홈플러스 기사를 쓰면서 그 운명

대한경제

2025-03-05 (수) 0021

3년째 적자 '수렁'에 재무 악화... 오프라인 유통 위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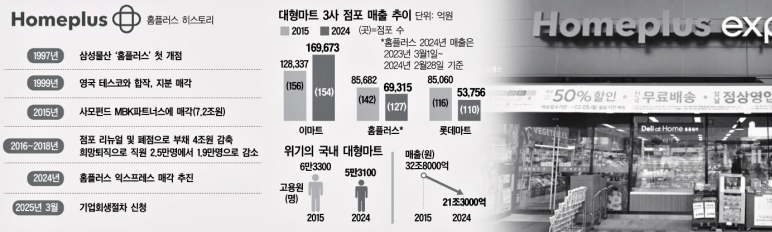
홈플러스 회장 생애 배경 전망

우량점포 매각... 매입경쟁력 떨어져
잇단 구조조정에 인적 경쟁력도 상실
업계 전반 성장 둔화... 규제도 걸림돌

본업 강화로 위기 극복 총력전 나서
경쟁사도 공격형보... 생존싸움 치열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 전반에 위기감이 감돈다.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면서 우량 자산을 매각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대형마트업 경쟁력 자체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인 2014년 회계연도에 매출 8조568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한 번도 연간 매출 8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더구나 2021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적자로 기록했다. 점포는 2015년 142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15곳이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이마트24점포, 롯데마트6개점의 폐점 규모를 크게 웃돈다.



유통업계에서는 점포 수와 규모가 핵심인 오프라인 유통업의 공식을 비켜간 결과라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점포가 많고 면적이 넓어야 판매할 상품이 늘면서 매입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우량 점포를 매각하면서 매입 경쟁력이 약해졌고, 우수한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인적 경쟁력마저 상실한 게 10여년간 쌓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했지만, 외형 회복을 이루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인

건비, 임차료, 상각비 등 고정비용 부담이 커져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홈플러스 사례는 단순한 재무적 조정이나, 오프라인 유통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현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홈플러스의 상품등급 강등이 유종 구조적인 환경은 오프라인 유통 대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점포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부담이 큰 데 온라인으로 소비 환경이 빠르게 대체되면서 비용을 상쇄할 만큼 성장을 이루기 쉽지 않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했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0.6% 감소했다. 여기에 근거로 소비 채널로 자리 잡고 있는 편의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둔화했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성장세이지만, 전체 오프라인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다. 규제도 문제다. 대형마트와 SSM은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탓에 연중무휴 영업하는 이커머스와의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

홈플러스는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식료품(그로스리) 중심 대형마트와 SSM, 온라

인 배송과 연계한 서비스 등은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모두 실행하고 있다. 더욱이 경쟁사들은 올해 수년 만에 신규 출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 시장 전망도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소매유통시장은 전년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의 대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난 해부터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협력사들이 이탈할지도 모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연이자를 주기도 했다. 문수아 기자 moon@

1년 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을 때도 산업논리 이외에는 지면 밖으로 밀렸다.

이 어디까지일지 짐작해보려 잠깐씩 멈춘다. 1조 원이라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000억 원대에 팔렸고, 그 돈은 누구의 시름까지 견어 낼 수 있을지 생각이 뻗어나가도록 가만히 둔다. 그러다 1년 전 그 판매자가 왜 자신의 운명을 안다고 했는지 하고 싶지 않은 공감이 된다. 부디 그들이 안다고 했던 그 운명에 대한 예측이 틀렸기를 바란다. 그것밖에 바라지 못하는 것으로 나의 부채를 너무 가볍게 떨치지 말자고 도구함 한쪽에 이 마음을 넣으면서.

대한경제 문수아 기자